

11월 28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23일(한국시간)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군인 2명이 사망, 군인과 민간인 포함 15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또한 남가주를 비롯해 미주 한 인교계 지도자들은 북한이 도발적인 폭격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가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나성영락교회 원로 박희민

런 폭격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일을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미스바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북도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사건을 대처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원기 목사 역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족의 평화를 위해 남북이 화해의 제안 앞에 서서 이런 도발이 다시는 없도록, 교계가 남북 대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에틀랜타교회협의회 부회장 김영환 목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성경구절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재일 기자)



한인 1세와 2세가 함께 하는 사랑 나눔 콘서트

제44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가 새롭게 출범한 이래 첫 사업으로 '2010 사랑 나눔 콘서트'를 12월 4일 개최한다.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 나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사랑의 콘서트 또한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영리 단체들과 작은교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후원금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재학 목사(남가주 교협 홍보분과위원

12월 4일 주님의영광교회서

'2010 사랑의 콘서트' 개최

2010 사랑의 콘서트 공동후

원회 조동진 사무총장은 “한국 축복교회 담임 김정훈 목사와 텔런트 허준호 등 다수 연예인과 축복교회 연합공연단 80여명이 출연하는 이번 사랑의 콘서트는 연말을 맞아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콘서트는 1부 예배와 2부 연예인들의 신앙 간증과 찬양으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박효우 목사는 “콘서트를 통한 후원금을 나눔선교회 등 비

전재학 목사(남가주 교협 홍보분과위원)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축복교회 전체 스태프가 자비량으로 참여하며, 콘서트 후원금 전액은 한인단체 및 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시: 2010년 12월 4일(토)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1801 South Grand Ave, LA, CA 90015 / 213-749-4500
공연시간: 1부 오후1시 / 2부 오후7시 / 주강사: 축복교회 김정훈 목사 / 특별출연: 허준호, 김사랑 외 다수
콘서트 도네이션: \$10
문의 : 213-327-9496
(지재일 기자)

미주 교계 지도자들 北 연평도 폭격사건 우려 표명

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OC교협 등 교계 단체들은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28일(주일)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교회와 단체, 교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목사는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의 6자회담 재개와 김정은 후계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민간인을 공격한 이상 일시적인 대응은 필요하나 먼 미래를 위해 인내하며 남북화해가 회복되도록 교계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용덕 목사는 “갑작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중기 목사는 “북한 연평도 폭격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희생된 2명의 해병 전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 목사는 “현재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같은 폭격사건이 벌어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화의 물꼬가 트여 남북 화해가 회

남가주사랑의 교회 EM '추수 감사절 아웃리치'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지역의 저소득·흠리스 자녀들을 위한 미니 스쿨을 개설해 1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진행했다.

미니 스쿨에서는 신분 문제나 노숙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음식을 제공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EM(하워드 윤 목사)에서는 지난 여름 저소득·흠리스 자녀를 위한 성경학교를 개최해 주민들을 관장하는 매그놀리아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박상미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염 없습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크로버탄소매트

탄소 (Carbon) 함유량?

솜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미래형 소재로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다른 온열 매트에 비해 열 효율이 높고 절전형이다. 솜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및 항균, 탈취, 항습효과가 뛰어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빙(Well Being) 소재이다.

QUEEN \$ 349
KING \$ 429

대리점 문의 & 제품 상담
Crover Inc
323-588-7277
WWW.CROVERGREEN.COM

전기선이 없는 건강가능성 매트

폼소재 “탄소 함유”가 기존 전기선을 없애고, 품격있는 친환경 소재인 카본 탄소 함유 발열체를 통해 피부에 느끼는 온열효과가 높고 열이 공간으로 고르게 방사되는 복사열 가열방식이어서 안방,침실에 따사로운 온기가 전해 집니다.

전자파 걱정은 이제 그만!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어 더 안심!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매트를 보셨습니까? 이제 그 과학이 기술로 실현 되었습니다. 매트안에 전기선을 걸어내고, 그대신 탄소 함유 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자파 테스트를 통과하여 전자파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복사열

카본 탄소 함유 발열체에서 방사되는 열은 전기선의 인위적인 열이 아닌 원적외선 복사열 이 발산 되므로 선조들의 따뜻한 온글광처럼 훈훈한 온기를 깊숙히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숙면, 항균, 곰팡이 억제 및 냄새제거에 탁월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탈취기능 (84%), 항균기능 (99%)

세계 최초로 전기 제품중 유일하게 물세탁 (세탁기) 이 가능한 신제품

세계 최초 4개의 발명특허로 이루어진 탁월한 내구성과 방수절연이 가능한 특수 4중 “안정코팅” 으로 세탁후 건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강가능성 카페트이고, 물이 있는 곳은 스스로 전원이 차단되므로 감전의 위험이 없고, 완전히 건조 후 전원이 전열되는 시스템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침기능

두 사람이 잠을 잘 때 자기 체온에 맞는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난방 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한쪽만 사용할 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분리 구조형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난방1,난방2 를 선택하여 누르시고 취침기능 버튼을 누르면 숙면 할수 있는 최적의 온도 35 C (2C)를 유지 시켜 줍니다. 난방 기능이 10시간 이상 지속될 시 자동으로 꺼집니다.

‘Crover’ 는 ‘Cross’ 와 ‘Clover’ 의 합성어로 십자가의 행복을 의미 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 판매처**
- LA Sweet Dream (213)389-2828
 - 김스전기 (213) 386-4882
 - 정스 백화점 (213) 385-1111
 - ABC 플라자 (213) 386-1155
 - 헬스코리아 (323)-733-4986
 - 라디오호쇼핑 (888)-488-1004
 - 트렌스 네이비스 (310)326-6666
 - 세리투스 이블타운 (562)402-3737
 - H. Mart 내
 - 가든그로브 이블타운 (714)530-6378
 - 아리랑 마켓 옆
 - 샌디에고 이블타운 (656)496-0766
 - 샌디에고 시온마켓 내
 - 가디나 Marukai (310)660-6300

추석 연말·연시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세요!

최초 발명특허 47가지 획득한 신개발품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신임회장에 김희수 목사

“목회자 위한 영성 세미나와 기도모임 활성화 할 것”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신임회장에 김희수 목사(샌디에고 베델 한인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지난 16일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2010년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는 관례대로 샌디에고 지역 복음화에 헌신해온 김희수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희수 목사는 “부족한 종을 신임회장에 추대해준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입기 시간동안 목회자들의 영성과 사



(좌)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신임회장에 김희수 목사, 전임회장 최동진 목사.

역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교역자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임회장 취임사를 밝혔다.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영성 세미나와 목회 가운데 겪는 애환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기도모임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김 목사는 덧붙였다. 부회장으로는 강

용훈 목사(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신임임원 명단 △총무 박병섭 목사(샌디에고온누리교회 담임), △서기 손정훈 목사(샌디에고온누리교회 담임), △부서기 김건오 목사(샌디에고 로고스교회), △회계 김성식 목사(샌디에고동양선교회 담임), △부회계 안중기 목사(샌디에고 믿음교회).

한편 교역자협의회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샌디에고 타운 & 컨트리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0 미주한인청년 선교대회 (GKYM Vision)와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 주관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재일 기자)

OC교협 건강대축제 및 전도 세미나로 올해 사업 마무리



가 주관하는 이번 건강대축제는 무료 양·한방 검진을 실시하며 무료 종합 초음파 검진, 무료 독감 예방주사(50명 선착순)를 실시한다. 의료보험이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용덕 목사 “450여 교회와 은혜롭게 지내온 것 감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가 내달 12월 6일 개최될 총회를 앞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대축제와 예심 전도법 세미나 등을 개최,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대축제’는 11월 28일(주일) 오후 1시~5시까지 남가주빛나리교회에서 진행된다.

OC교협과 세계의료선교센터

또한 OC교협은 11월 30일~12월 1일까지 김기남 목사 초청 예심 전도법 세미나를 남가주빛나리교회에서 개최한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세미나는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및 전도에 관심 있는 제직 등 누구

나 참여가능하다. 단, 사전등록 필수.

박용덕 목사는 “올 한해 오렌지 카운티 지역 450여 한인교회들과 무사히 은혜롭게 마무리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OC교협에서 주최하는 건강대축제나 전도법 세미나 등이 마무리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교협은 12월 6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제 20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 앞서 지난 11월 17일(수) 오렌지카운티교협 증경회장 단 모임이 열렸으며, 2011년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오렌지카운티교협은 증경회장 단의 추천과 심의에 따라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결정되며, 총회의 인준과정을 걸쳐 확정된다.

문의: (714) 401-9874 (남가주 빛나리교회)

건강대축제 및 세미나 장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박삼미 기자)



ORT 영어 무료 직업교육 보조금 제공

LA ORT칼리지의 저소득 영주권자들을 위한 영어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인가다.

특히 정부 보조금으로 교육하는 저소득 영주권자들을 위한 8개월 코스의 영어 프로그램은 학비와 교재비가 무료이며, 직업교육 프로그램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학비부담이 적다.

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하루 4~5시간의 수업이 긴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영어 실력이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ORT칼리지는 또한 질 높은 직업교육과 졸업 후 90% 이상의 취업연계 시스템으로 고등학생들과 학부형들

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컴퓨터 어카운팅, 사무직, 비서직 등이 있으며, 컴퓨터 그래픽,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등 다채로운 분야가 있다.

올 초 메디컬 어시스턴트 과정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한인 클라라 씨는 “취업위주의 기술교육을 짧은 기간에 달성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정부가 학비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며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LA ORT칼리지는 유학생 I-20, 소셜 번호, 노동허가, 학생비서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LA ORT 칼리지 한인 담당 플라워 박씨는 “학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포기한 채 방황하는 고등학생들이 적극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213)434-8128 한인상담: 플라워 박 (박삼미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High School 졸업생에게

* 짧은 현장실습을 통해 알찬 직업을 추천합니다.

LAORT 대학 / 저소득층 영어컴퓨터전액 무료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1. 기초영어 중 고급 8개월 코스,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3.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컴퓨터로 하는 어카운팅, 사무직, 비서직
4. 컴퓨터 그래픽 과 테크니컬출판,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 드라프트
5.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메디칼 오피스스페셜리스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광저우 아시안게임 감동의 순간 아이토크비비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야구팀 금메달의 래거 **팡팡!!**
아이토크비비가 쓴다!

추신수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 가입시 **3개월 무료!**
행사기간: 11월 8일(월) ~ 11월 30일(화) 까지

이·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3가지 혜택이 **공짜!**

1.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전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하세요!
2.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 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개통비 \$29.99 면제 \$0

iTalkBB Global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한국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3시간 통화,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iTalkBB Global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 \$14.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34.99/월)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아·이·토·크·비·비 iTalkBB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 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팀을 추가 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 전화: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하고 간단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소·연방 기관에 의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은 48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이 프로그램은 기간 동안 유효한 동안만 유효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광역 기가전화는 기본비 (20.00)가 부과됩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추신수 글로벌 플랜 또는 추신수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의 관련 정보와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1-800-872-2902로 연락하십시오.

열린말씀 컨퍼런스 ‘섬김으로 부르심’



좌담회를 하고 있는 열린말씀 컨퍼런스 강사들. ©박상미 기자

평 신도 입장에서 중요하면서 궁금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열린말씀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올해는 ‘섬김의 제자도’라는 주제로 12일~14일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렸다. 교회의 목사나 직분자라면 ‘섬김’의 리더십을 말한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듣는다. 하지만 섬기는 자리가 권위의 자리로 변질되거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려할 때 이미 복음은 가리워지고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다.

열린말씀 컨퍼런스에 모인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들은 말씀 앞에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았다. 컨퍼런스의 주 본문인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은 후 성도들과 목사들은 좌담회를 가졌

다. 교회 내에서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분위기와 달리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졌다. 열린말씀 컨퍼런스는 디모데전서를 본문으로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뉴라이프선교회), 최정권 목사(첼튼햄장로교회), 정민영 선교사(아시아

의무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제자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부르”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질적으로 닮아가는

분자 세미나 혹은 수련회를 한 기”이라며 “강사의 입장에서는 한권의 책을 공부하며 마무리하는 성취감이 있었고, 성도들도 한권의 성경책을 공부하고 마쳤다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 말했다.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 김한요 목사는 “성도들은 본래 섬김을 위해 지음 받은 존재들이며 이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가장 행복해진다”며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섬김의 제자도로 무장된 교회만이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뉴라이프선교회 박영배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들간에 잘못된 권위적인 벽을 허물고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산다면

섬김으로 쉽게 풀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2010 남가주 열린말씀 컨퍼런스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김한요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 노진준 목사(세계로교회), 박영배 목사(뉴라이프선교회), 한성윤 목사(LA남포교회) 등이 강사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참가자와 대화하는 좌담회를 포함한 흥미로운 말씀 집회로서 말씀의 권위에 타협할 수 없지만 권위주의의 모든 형태를 탈피해보자는 의도로 남가주지역에서는 5번째 개최됐다. 전 미주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열린말씀’의 정신에 동의하고 개교회의 부흥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관심이 있는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학적인 이슈들을 평신도 중

목사와 평신도, 열린 말씀으로 ‘섬김의 제자도’ 조명

디아스포라 동원전담),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등이 강의했으며, 마지막 날 ‘섬김의 제자도’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진 후 모든 순서가 끝났다.

열린말씀 컨퍼런스 코디를 맡고 있는 박성일 목사는 “섬김이라는 것에 기쁨과 부담을 동시에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현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직분자의 권위와

것으로 억지로 하는 ‘굴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며 “특히 디모데전서에는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섬김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세리토스장로교회 김한요 목사는 “섬김으로 부르신 교회 안의 직분자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며, 마치 직



강사로 나선 목회자들이 은혜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헬스클럽 멤버십 • 해외여행
- 응급시 혜택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풀선)

금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돼지 213-908-0854

축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일일 노동자들과 사랑을 나눠요!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쌀쌀한 바람이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토요일(20일) 아침, 월서 휴디포를 서성이는 일일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이 배달됐다.

남가주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는 정성껏 준비한 아침식사와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의 전도지,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일일 노동자들을 맞이했다. 단순한 아침식

따뜻한 커피와 빵을 아침식으로 제공했다.

남가주광영교회 노동자들에게 무료 급식

사가 아니라 진정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그리스도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문규 법률그룹의 후원으로 이번에 처음 무료 급식을 실시한 남가주광영교회는 ‘나눔’으로 얻게 되는 ‘사랑의 법칙’을 되새기며 돌아갔다. 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상미 기자>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44회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감사 예배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11월 28일(주일) 오후 4시
- ▶장 소 : 미주성산교회(방동섭목사 시무)
- ▶설 교 : 석태운 목사(목사회 증경회장, 세리토스동양선교회)

이정현 목사 이임회장 **박효우 목사** 취임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29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Tel 213-503-3355 Fax 213-385-9191

2010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약만불 후원금 모금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23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남가주 1,300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지는 작은 쌀 한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소서” - 박효우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2010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15만불의 후원금 목표액을 설정한 가운데, 23일 현재까지 약 1만불이 모금됐다고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밝혔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는 23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공동회장과 실행위원 연석 모임을 가졌다.

나간 후 쌀 신청 문의가 빗발치는 것을 볼때 시민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며 거듭 후원을 요청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는 나눔 운동 홍보를 위해 언론사 기자회견과 이메일 등 온라인 광고, 1,200여 교회에 공문 발송, 교회 홍보위한 30초 동영상 제작, 성탄절 헌금시 사랑의 쌀 후원헌금

박희민 목사는 “올해 두번째로 이어지는 쌀 나눔 운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여 한인사회의 화합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5일(주일) 오후 6시 30분 중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는 미주 사랑의 쌀 나눔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는 월드미션대 윤임상 교수의 지휘로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월드미션대학교 챔버콰이어가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연주할 예정이다.

“사랑의 쌀 나누며 이웃사랑 실천해요”

을 요청하며 사랑의 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사랑의 쌀 나눔 장소를 모두 지정된 후, 선물권을 나누고 12월 18일(목)과 12월 30일(목) 두 차례 LA총영사관 등 지정된 나눔 장소에서 쌀을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독거노인, 결식아동, 개인 신청자 1만 5천명이며 이중 타민족을 위한 컵라면 2천 박스와 사랑의 쌀 1만 3천포를 배부한다. 이를 위해 ‘성탄절 한 가족 쌀 한포 10불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10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 LA총영사관(김재수 총영사),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주최하며 미주성서화운동본부(회장 박희민 목사)와 홀리클럽이 주관한다. 사랑의 쌀 지원 예약: 213) 384-5232

후원금 체크: (Pay to) Holy City-사랑의 쌀 (505 S. Virgil Ave, #160, LA, CA 90020) <지재일 기자>

나눔과기쁨 LA지역 2차 설명회 가져

지난 11월 16일(화) 나눔과기쁨 미동부지역 뉴욕본부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나눔과기쁨’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나눔과기쁨 LA지역 2차 설명회가 11월 19일(토)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에서 개최됐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세미나에서 서경석

목사들만의 조직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큰 교회 목사들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음을 알렸다.

목사들 중심으로 전개되던 활동은 동네별 후원회 조직과 맞물려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전망이며, 나

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성과면에서도 더욱 좋아졌다”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는 “반찬을 나누는 작은교회도 모금운동을 통해 반찬값을 일부 지원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며 “교인수도 없고 나눔 활동에도 의욕이 없는 목회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한 일자리

서경석 목사 “나눔과기쁨, 교포사회에서 확산되기를”

목사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나눔과기쁨’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중앙본부에 의한 활동이 점차 광역자치단체로, 이것은 다시 시군구 단위의 조직으로 활동단위가 바뀌고 있다. 서 목사는 “2011년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지부조직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각 동네가 주요 활동단위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초기에 없었던 각 연합회 본부장 및 지부장의 임기제가 각각 3년, 2년으로 도입되었고 그 임기가 단축되고 있다. 이미 서울지역 나눔과기쁨 본부장 임기는 1년으로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나눔과기쁨 운동이 확장되면서 큰 교회와 중형교회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서경석 목사는 “작은교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교회가 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점은 변함

없지 이제 더 이상 작은교회 목사들만의 조직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큰 교회 목사들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음을 알렸다.

목사들 중심으로 전개되던 활동은 동네별 후원회 조직과 맞물려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전망이며, 나

를 창출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LA지역에서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 설명회를 개



서경석 목사

나눔과기쁨의 대표적인 운동인 ‘반찬나눔’을 일례로 서경석 목사는 “천안의 한 중형교회가 1년간 반찬을 지원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서 반찬을 나누던 작은교회 목사들이 직접 돈을 모아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더욱 정성을 다하

최한 나눔과기쁨은 내년 1월 LA지부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나눔과기쁨에 동참할 활동가(나눔미)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문의: 714) 393-4452 (사무국장 김용호 목사) <박상미 기자>

서영석 라크레센타 타운의원 당선 축하예배

서영석 장로(나성한인교회, 전 LA 한인회장) 라크레센타 벨리 타운의원 당선 축하예배가 지난 19일 JJ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됐다.

2개월이라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타own의원에 무난히

당선된 서영석 장로는 “하나님께서 라크레센타를 섬기라고 선택하셨다”며 “지역 한인들과 타민족간의 교류 협력, 차세대 한인 리더 배출에 힘쓸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축하예배는 표세홍 목사(LA 교역자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호 목사(미주 대한신학대 부총장)의 기도, 변영익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의 설교, 유승열 목사(미주 대한신학대 대학원장)와 박효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



라크레센타 타own의원에 당선된 서영석 장로(나성한인교회)

목) 취임식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장)의 축사, 박영창 목사(남가주 교협 증경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영석 장로는 내달 16일(목) 취임식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지재일 기자>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financing. Includes a car image, a list of questions (e.g.,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and contact information for Puente Hills Hyundai.

Large advertisement for Reform University & Seminary. Features a laptop image, the university logo, and text for a '컴퓨터 활용 강좌' (Computer Usage Course) starting on Dec 2nd. Includes details about enrollment,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새벽강단 20] 은혜한인교회 새벽예배

감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15일~19일까지 5일간 특별새벽집회를 개최했다. 한기홍 목사는 “오늘 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한 해 동안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 목사는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 안에 복음의 회복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다”며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문: 엠 2장 8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은 행복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늘의 보화요

우리는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입니다. 엠 2:1~3절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주의 피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대한 감사로 나타내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지 예정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은혜한인교회 5일간 추수감사 특별새벽집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세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큰 은혜입니다. 롬8:29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시139:14~16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롬8:30...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 43:1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부르

셨습니다. 요14:6. 세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요3:3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

됨입니다. 예수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롬8:15.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롬8:17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영화입니다. 롬 8:30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릴 때 어떤 고난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을 감격으로 만날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여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상미 기자〉



한기홍 목사

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 연합찬양축제



복음주의목사모찬양단은 찬송가 311장을 찬양했다.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총회장 정요한 목사) 제3회 연합찬양축제가 14일 벨렐장로교회(담임 변영의 목사)에서 개최됐다. 정요한 목사는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는 복음주의 신학의 거성이었던 김의환 박사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였던 김재연 목사와 변영의 목사, 원로 목회자

들에 의해 교단이 창립된 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며 총회 소속 교회들이 연합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시간은 정요한 목사의 사회, 김복삼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변영의 목사(수석부총회장의 환영사, 신원규 목사(중

경총회장의 설교, 지용덕 목사(남가주 교협 회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찬양시간에는 성서장로교회, 미주베델교회, 벨렐장로교회, 삼성장로교회, 세계비전교회, 미주양곡교회 성가대가 찬양양했으며, 박트리오가 특별출연 했다.

〈지재일 기자〉

미주성결교회 전 총무 황영대 목사 고별예배 드려

미주성결교회 교단 전 총무 황영대 목사(향년61세)가 지난 11월 14일 지병으로 소천했다. 황영대 목사를 위한 고별예배는 지난 11월 17일 로즈힐 메모리얼 채플에서 교단장으로 경건하게 엄수됐다. 예배는 미주성결교회 총무 박승로 목사의 집례로 부총회장 김주영 장로의 기도, 총회장 김광수 목사의 설교, 엘에이

지방회장 김수철 목사의 약력소개, 미주성결대 이사장 이상복 목사의 조사, 조가, 유족대표의 인사가 이어졌고, 증경총회장 허경삼 목사의 축도로 예식을 마쳤다. 설교를 전한 김광수 목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인은 교단과 이민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았다”며 “우리 모두는 하나



故 황영대 목사

남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고인을 감사함으로 보내자”고 말했다. 고인의 빈소

와 고별예배에는 고인의 생전 활동을 보여주듯 많은 교단과 교계 인사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故 황영대 목사는 서울신학과와 벤지민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휴스턴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강남교회와 만리현교회, 다수동교회, 다이아몬드교회, 샌디에고교회를 설립해 섬겨왔다.

특히 강남교회와 미주송현교회는 직접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헌신했다. 또한 남가주교역자회장, LA 중부지역 교회협의회회장 등 연합활동에 힘썼으며, 본 교단 10대 총무를 역임했다.

고인은 로즈 힐 묘역에 안장되었으며 유족으로는 미망인 황에스터 사모와 2녀, 장녀 황신덕 차녀 황애덕, 사위와 손녀가 있다.

〈지재일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 가족초청\$190
- 영주권 수속 \$600
- 이혼비용\$290
- 시민권 수속 \$100
- 공증 \$10

20년을 길은 정스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면제,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본드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 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윌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 아틀란타지구총교회 담임 권석균 목사

[기획 연재3] 설교자 용량 높이기 : 효과적인 설교준비



아틀란타지구총교회 권석균 목사

전 세계 이민교회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창립한 코딤(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은 지난 10월 2차 서부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딤은 세미나와 멘토링을 통해 이민 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역자들이 목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분야별 강의를 요약, 기획 연재 한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 산업을 통해 부를 쌓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의 컴퓨터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빌 게이츠는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라는 같은 대답을 질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한 편의 성공적인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라이트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베크하이머(Hunter Beckelhymer)는 “성공적인 설교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설교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설교란 한 인간의 신앙과 정성 어린 마음과 언어의 기술과 그리고 지적인 모든 바탕의 최고점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임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일리온 존스는 “설교자가 현재의 ‘나는 초보 단계를 벗어난 완벽한 설교자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완벽한 설교자’란 없습니다. 설교자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설교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자에 대한 조크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와 설교를 아주 못하는 설교자의 공통점

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청중의 필요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여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특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버트 맥체인(Robert Murray McChyne)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한 마디 말도 하기 전에 청중들이 흐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금방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와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려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교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난 성취를 이룬 설교자가 있다면 존 웨슬리(John Wesley)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애 50년 기간에 42,000번 설교를 하였고, 20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약 40만 킬로미터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먼저 기도 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시간을 철저하고 빈틈없이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시간을 5분씩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5개 언어를 섭렵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설교자는 생활 전체가 설교 준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설교의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현실에 대한 적용일 것입니다. 고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결코

오늘을 살고 있는 인생들의 삶의 현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청중들이 삶에 잘 적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부지런히 신문, 잡지, 뉴스 등을 통해 현재의 돌아가는 상황과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의식 구조 파악, 현대 철학의 사조와 변화, 과학의 발전, 문학의 흐름 등이 설교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평소에 독서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있었던 레이몬드 베일리(Raymond Bailey) 교수는 오늘날은 현재의 지식이 일 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평소에 시간을 내어 독서를 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매카울레이(Macaulay)는 설교의 한 문장을 쓰기 위해 20권의 책을 읽었고, 하나의 사실을 말하기 위해 백마일의 여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국민일보가 신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설교자에서 일 위를 차지한 이동원 목사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지금도 적어도 열권의 경건서적을 참고로 한다고 합니다. 한 미국인 설교자는 일주일에 신약을 한 번씩 독파한다고 하며, 또 다른 미국인 설교자 제프 아담스(Jeff Adams)는 신약성경을 모두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다섯째,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현대는 정보화시대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 준비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설교의 세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높이 보면 볼수록 그의 세

계는 높아지며, 많이 보면 볼수록 그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설교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www.google.com 등에 들어가면 본인이 준비한 주제나 제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c3tv.com>, www.paa.co.kr, www.on-nurivitv.com, www.jiguchon.org, www.cyw.pe.kr, www.bible.co.kr 소개한 웹사이트 외에 링크로 소개하는 것들을 통해 설교자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큐티(QT)를 통하여 평소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설교자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설교자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강단의 무능력은 설교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체험의 부재이며 설교자의 연약한 영성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있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일곱째, 귀납법적 성경 연구식으로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귀납법적 성경연구란 말 그대로 연역적이 아닌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씩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여 후에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납법적 성경연구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접근을 말합니다. 그것은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을 말한다. 관찰의 단계에서는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연구는 실력 이전에 ‘시력’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는 순간, 거기에 어떠한 사실들이 들어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습니다. 즉,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해석한 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인 적용단계입니다. 적용 단계에서는 “본문을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볼 수도 하겠습니다. 첫째, 책별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책들을 번갈아 가면서 강해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책별 강해 설교집이나 주석 등을 참조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물별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연구하여 인물별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연구’집 등을 참조하여 설교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셋째, 주제별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담(고전 13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드린 중보기도(출17:8-16) 등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성경에서 찾아내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리별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론,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론, 천사들의 활동에 관한 천사론,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마귀론,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인간론, 종말에 관한 종말론 등을 연구하여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회력에 따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을 주님의 날(고전16:2, 행20:7)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일 년을 우리 주님의 구속사에 따라 구분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시기와 사교들을 재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일 년 교회력은 대강절(강림절)에서 시작하여 성탄절, 주현절(현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 감사절 등의 순서로 설교하면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고민이지만 설교는 설교자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설교를 통해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라’는 말은 ‘설교하라’는 말입니다. 설교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석균 목사: revkwon21@hotmail.com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교정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80%XX)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LA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한인장례에 저의 친절한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 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 神의 존재 부정한 '위대한 설계' 비판 저서 출간 예정

▶ 수학자 레녹스, 호킹에 반박... "과학은 신앙 장애물 아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최근 저서 '위대한 설계(Grand Design)'에 반박하는 새 책이 현지인 영국에서 곧 출간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호킹 박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 '신과 스티븐 호킹: 누구의 설계인가(God and Stephen Hawking: Whose Design is it Anyway?)'의 출간을 오는 1월로 앞두고 있는 수학자 존 레녹스(Lennox) 박사는 최근 영국 타임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은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며 물리학적 이론에 근거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호킹 박사의 주장을 비판했다.

호킹 박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 중력의 존재가 우주의 탄생인 빅뱅을 이끌었으며, 따라서 우주의 창조와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신이 개입할 영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리학계가 전통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에 따르면 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주장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과학계와 종교계에서 많은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레녹스 박사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호킹 박사의 이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을 통해 "신은 불필요하다"라는 독단에 이르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는 "호킹 박사와 같은 방식으로 우주 또는 다중우주(multiuniverse: 여러 개의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론의 창조를 믿으면서도 신을 믿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하나님을 다중우주의 창조로부터 막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의 반문이다.

기독교인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레녹스 박사는 캔버리지대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버트란트 러셀이나 알베르 까뮈 같은 무신론자들을 추종하는 학생들과 많은 토론을 벌여 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반증이 가능하다. 증거가 없어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가능하기 때문

에 믿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레녹스 박사는 말했다. 레녹스 박사는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이해하게끔 돕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수학적 공식에 기

초한 제안들을 너무나 쉽사리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는 반드시 옳지 않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은 어떠한 이론이 아니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연말을 맞아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후원 아동들

월드비전 '굿 슈즈'로 불우 아동 도와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미국의 대형 신발 할인 매장인 페이레스 슈즈(Payless Shoes)로부터 신발을 기부 받아 지

구촌 불우 아동들을 돕는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진행되는 '굿 슈즈(Good Shoe) 프로그램은, 고객이 페이레스 슈즈사에서 Airwalk Hope 신발을 한 켤레 구입할 때마다 한 켤레의 아동용 신발을 월드비전에 기부, 중앙아메리카의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신발 기증 프로그램(Payless Gives Shoes 4 Kids)을 진행했던 페이레스 슈즈사는 지난 2년 동안 총 220만 달러 상당의 신발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10개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 아동들에게 기부한 바 있다.

페이레스 슈즈사의 Lu-Ann Via 회장은 "이번 Good Shoe 프로젝트는 매장을 찾

은 고객들이 신발이 없이 지내는 해외 아동들을 돕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맨 발로 지내는 전 세계 불우 아동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오웬(David Owen) 월드비전 기업 협력 부회장은 "새 신발을 기증 받은 아동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며 "신발 한 켤레를 통해 아동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3가량인 약 4억 1천만 달러를 기업체의 현물 기증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체와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박상미 기자〉

파키스탄, 사형 선고됐던 기독교인 여성 석방

파키스탄에서 최근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당한 기독교인 여성이 22일(현지 시각)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아시아 비비(일부 언론에는 아시아 노린으로 보도됨)는 작년 6월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 무슬림 동료들의 시비로 말쑤움을 벌이던 중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가 동료들은 물론 마을 무슬림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비비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자주 무슬림 동료들로부터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강요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반 가량 투옥되어 있던 비

비는 지난 8일 파키스탄 훈잡 주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현지 교회는 이같은 판결은 지역 무슬림 지도자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박해 소식지 컴파스 다이렉트 뉴스(CDN)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비비는 긴 수감 기간 동안 한번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45세인 비비는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다.

비비 이전에도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이 항그러나 항고심 과정에서 석방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로, 국제 인권



아시아 비비

단체들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신성모독법이 타 종교 탄압을 위해 무죄하고 약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현실에 대한 환기를 촉구하고 있다.

파키스탄기독교총회(PCC)는

사형 판결 직후 비비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지 교회의 이같은 지지 속에 비비는 지난 20일 직접 대통령에게 사면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훈잡 주지사에 의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의 석방에 대해 현지 교회는 "우리는 그녀가 비로소 안전해진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성모독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고난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우려를 전하고, 신성모독법 폐지가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손현정 기자〉



자동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들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 임상철 목사 첫번째 도네이션 자동차 -

후원자: 임상철 목사(남가주리미더교회 부교역자) 수혜자: 문형미 전도사(나성순복음교회)

끊임없는 신학연구 기반돼야 성공적 목회 가능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서 제2회 이민 신학심포지움이 열렸다. 심포지움 패널토의를 통해 “신학과 이민교회의 통합”에 대해 논의했던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이상명 박사(사회자), 소기천 박사, 박해경 교수, 크리스티나 강 박사, 허정갑 박사, 주승중 박사, 오규훈 박사가 참여해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며 솔직한 신학과 목회의 대화를 이끌었다.

이 세션은 먼저 이뤄졌던 목회자들의 패널 토의 이후 진행된 것으로 “신학과 이민교회 통합”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주로 발표됐다.

점이 서로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신학과 이민교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이유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박해경 교수(미국 북음대학교 교수, 구약학, Ph.D.can.)는 “현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교회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예배설교학, Ph.D.)는 “설교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사(ambassador)로서 보냄을 받고 위탁을 받은 자”라고 말하며 “왜 설교자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설교자

반성이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교회의 설교가 오직 성경만을, 그리고 성경 전부를 전하는 설교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그는 “그 동안 이민교회의 설교에는 너무나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왔다. 설교자가 자기 말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성경을 인용하는 모습이 있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결국 오늘의 이민교회의 강단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 오늘날 인본주의, 포퓰리즘 적 설교로 강단의 오염을 가져온 현실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2회 이민신학심포지움에서 열린 신학자 패널토의 모습.

〈신학자들의 견해〉

신학과 이민교회 통합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

이미 교회에 존재하는 고전 신학을 대치 또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 의지를 잃어버리는 과정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생명을 중시하기도 보다 교회라는 제도 자체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신학공부 이후 교회 현장에서도 신학을 공부했던 만큼의 고민이 계속될 때 신학과 목회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설교학적 측면에서 목회와의 적용점을 찾은 주승중 박사(장

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길 원하는가?에서 떠나 ‘회중이 무엇을 듣길 좋아하는가?’에 더 치중하게 되는가? 왜 이민교회 안에서 정중에게 죄의 지적을 통한 회개를 촉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회중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는 점점 더 강단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주 박사는 “이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설교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나의 사명인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설교자가 누구나 하는 신학적

주승중 박사의 발제에 대해 논찬한 허정갑 교수(콜롬비아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 Ph.D.)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사, 대언자라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민교회가 낯선 자 그리고 2세, 어린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이 도전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얼마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신학은 출발해야 한다”고 피력, 신학의 시작점은 삶이라는 메시지를 심었다. 허 교수는 “예배 신학을 통한 이민교회 문제점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안 제시”라는 논제를 통해 발제하며 성만찬과 교회 식사교제의 중요성과 예배신학의 신학적 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뉴욕교협 제37회기 1차 임·실행위원회가 열렸다.

37회기 교협, 사업도 회의 진행도 새롭게

제1차 실행위원회 열려

뉴욕 교협이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새 회기 사업과 예산안을 발표했다. 11월 22일 오전 10시 조은교회(담임 장용선 목사)에서 열린 임·실행위원회에는 46명 중 32명의 임·실행위원이 참석했다.

김원기 목사는 ‘회칙과 원칙’을 모든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교협 웹사이트 활성화 ▲교단 차원의 참여 ▲선거법 개정 ▲회원권 강화 ▲조직의 단순화를 제37회기 기본 정책으로 발표했다.

〈교협 37회기 이렇게 달라진다.〉

○ 교협 회의 안건은 회의 24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마감된다. 회의 당일 신안건 접수는 없으며 교협 회원이면 자유롭게 교협 웹사이트에 등록,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원기 목사는 “돌출 안건이 나오면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선거법을 비롯한 회칙이 전면 개정된다. 법률위원회가 차기 실행위원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현 회칙이 제정된 지도 40여년이 되어간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지만 교협의 현 상황과 맞지 않거나 회칙 간 또는 회칙과 세칙 사이 모

순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올해 총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교협은 회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5, 6월 경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 교협 회원은 개인이 아닌 교회다. 현재 교회로서 직능을 갖고 있는 교회만 인정된다. 교협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 명목만 존재하는 교회,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교회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범위 또한 한인 교회로 한정,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교협 증명회장의 경우는 예외다.

○ 교협 임원진은 회칙을 기준으로 있는 직책과 함께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웠다. 김원기 목사는 “고무줄이 늘어나고 줄어든 임의적으로 임실행위원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원진은 최소로 하되 할렐루야대회나 교협 주최 컨퍼런스 등의 행사는 전 교회를 아우르는 조직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감사도 총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실시한다. 그리고 결과는 임실행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한다. 올해부터 맡게 된 청소년센터 감사는 청소년센터 이사회 후부터 시작된다.

○ 교협 주소록과 수첩은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윤주이 기자)

목사회 회장 박성은, 부회장 송상철 목사 선출

애틀랜타한인목사회(이하 목사회) 2011년 차기회장으로 새순장로교회 박성은 담임 목사가 추대됐다.

22일 새순장로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목사회는 지난 임기 부회장이었던 박성은 목사를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

으며, 증경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새한장로교회 송상철 담임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소감을 밝힌 박성은 목사는 “목사 회원들 간의 단합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목사회가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목사들과의 교제도 활발히 해 동역자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 밖에도 차기 총회 상정을 위한 회칙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일임하기로 했다.

(김 앤더슨 기자)



신구임원진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철 전 회계, 김성진 전 서기, 최중찬 전 총무, 백신호 전 회장, 박성은 회장, 송상철 부회장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가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종교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일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영어(EM)예배: 오전 10:30(토)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토)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문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종교대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대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종교대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음)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양)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 한국 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 “옳고그름만 따져선 안 된다”

완화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남쪽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리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리만 가지고 우릴 상대했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공황과 사랑과 자비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을 녹인 게 순교자들의 피와 사랑이었다. 이번 사건을 가지고 또 따지고 “사과하라” “항복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진리의 잣대도 있지만 공황과 자비와 사랑의 잣대도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산주의도 녹이고 무슬림도 녹일 수

없을까. 무슬림을 가지고 진리의 잣대로만 대하면 테러로 대항할 것이다. 무슬림도 일본도 북한도 기독교의 사랑과 공황, 불교의 자비 정신으로 녹일 수 없을까. 그것이 기독교 2천년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독교 세력이 상당한 남한에서 진리의 잣대만 휘두르지 말고, 분노만 나타내지 말고, 공황과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죽어가는 동족들에게 쌀도 줘주고 그러면 북한 백성들 뿐 아니라 상류층도 녹일 수 있다. 무슬림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어리석고 바보같은 무식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

는 죽을 때까지 확신한다. 십자가에 나타난 공황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모두를 녹일 수 있다고 말이다.

물론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전쟁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로마를 보라. 기독교 국가가 됐다. 기독교인들이 데모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3백년간 죽어갔을 뿐이다.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남북이 화해한다면 세계가 놀라고 존중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화해의 사람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런 갈등을 계기로 전부 다 녹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서서…….

“北이 더 이상 도발 말고 속히 평화 되찾길”

교계 지도자들, 연평도 도발 사태에 우려 표명

천안함 사태의 아픔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북한이 23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 다량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교계 지도자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김운태 목사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었다”며 “북측이 속히 이성을 되찾고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운태 목사는 “천안함 사태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러한 일이 생겨 더욱 슬프다”며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상호 평화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는 우리 군이 지난 21일부터 육해공 합동해상훈련(호국훈련)을 진행했던 점에 대해 “피차 서로를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나치게 조건과 권리만 앞세워선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 교류하면서 불평 불만도 털어놓고 화해하고 교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먼저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 “잘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교계에서 지나치게 안이하고 감상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한국은 가급적이 문제에 대해 비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올 경우 절대로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는 또 “천안함 사태 당시 한국사회 전체가 일치 단결해서 단호하게 처신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교회도 이러한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저러한 만행에 대해서는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류재광 기자)

교회언론회, 동성애 반대 입장 표명 등 활동 보고



한국교회언론회 제78차 이사·실행위원회.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총장, 대표 김승동 목사)는 19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제78차 이사·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6대 대표로 김승동 목사가 취임한 이후 첫번째이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하여 보도자료 4회, 논평 4회, 공문발송 7회, 미디어읽기 및 칼럼기고, 각 언론 활동 10회 등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기독교의 입장을 밝혔는데, 법무부에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의 의견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해 달라”

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음을 보고 했다. 또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요청했음”을 보고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교계를 돌

제78차 이사·실행위원회 개최

제기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심판 청구 및 탄원 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군대 내 동성애를 허락할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 하에 성폭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 줄 것

을 토의하였는데, ▲첫째 언론회 사역 확대를 위하여 전국 교회에 협조를 얻는 일에 주력한다 ▲둘째 “주제별로 보는 한국교회사”를 발간하여 교회가 국가와 역사 가운데 긍정적이며 자긍심을 갖고 계승해야 할 사실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힘쓴다 ▲셋째 타종교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연구하기로 하였다.

즉 오해 부분을 해소하여, 종교간 평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교회의 정당한 입장도 세우도록 하는 일에 노력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정당한 입장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른, 교회의 공정성을 세우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대웅 기자)

큰은혜교회 새생명축제, 8,699명과 함께 예배

새가족 1,208명 중 789명 등록

3년째 ‘새생명축제’로 친지와 이웃들을 전도하고 있는 서울 낙성대동 큰은혜교회(담임 이규호 목사)가 지난 14일 예배자 8,699명, 새가족 1,208명과 함께 축제의 날을 마무리했다. 어르신들을 제외한 새가족 1208명 중 789명은 등록을 마쳐 큰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속 예배드리게 됐다. 큰은혜교회는 2008년 5,100명, 2009년 7,100명에 이어 올해 9,100명의 예배자와 3,000명의 새가족을 목표로 전도에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6,911명의 예배

자와 2,100명의 새가족(841명 등록), 2008년에는 1,290명의 새가족(580명 등록)이 참석했다.

이 목사는 올해 새생명축제에서 가장 달라진 준비 사항으로 ‘어르신분과’를 신설한 점을 꼽았다. 동네 양로원과 경로당을 다니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을 적극 초청한 것이다.

이규호 목사는 “목표를 7,000명, 9,000명이 아닌 7,100명, 9,100명으로 세우는 이유는 ‘끝’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재미교포용

www.ukopia.com

최저가 한국 호텔예약

"주민등록증 없이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 칼럼



김인수 총장
미주장신대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 플라워(May Flower) 호를 타고 영국 플리머드(Plymouth) 항구를 떠나 미국에 내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땅을 갈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農事)가 없는 미지에서 한발과 가뭄, 태풍과 토네이도, 매뚜기 떼와 새 떼들의 공격과 싸우면서 간신히 일구어 낸 햇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대부분은 잘 모르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상륙한 102명이 모두 청교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청교도가 아니고, 그 중 35명만이 청교도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청교도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s Fathers)'이라 부른다. 35명 외에 나머지 67명은 청교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강요하는 국가 종교인 성공회의 강압을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의 이민을 결행했다. 그러나 청교도가 아닌 나머지 노동자, 농민, 퇴역군인,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은 신대륙에 건너가 한말천 마련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메이플라워 호가 현재 보스턴 근처 이름없는 바닷가(Plymouth)에 닿을 내리고 상륙했을 때 미국에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이념)가 동시에 상륙한 것이다. 청교도들의 청교주의(Puritanism),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온 일반인들의 세속주의(Secularism)이 그것이다. 미국 초기부터 이 두 가지 이념은 상호 교차되면서 그 역사의 맥을 이어 온다. 그들이 도착한 이듬해인 1621년 가을에 어렵게 얻은 수확으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효시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난해 겨울 그들에게 거처할 천막과 먹을 양식 그리고 덮을 것

미국이라는 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했고, 세계 제일의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진선을 하는 동안, 한편에서, 비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는 물론 없었고, 생명을 보존해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의를 다지는 등의 일에는 상호 교차되면서 그 역사의 맥을 이어 온다. 그들이 도착한 이듬해인 1621년 가을에 어렵게 얻은 수확으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효시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난해 겨울 그들에게 거처할 천막과 먹을 양식 그리고 덮을 것

향락, 음란의 문화가 미국 역사 최초부터 교차되면서 이어져 내려왔다. 초창기에는 청교도 정신이 강하게 문화를 지배해왔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세력은 수세에 몰리고, 세속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서 청교도의 정신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감히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진화론, 동성연

출된 지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선출이라는 말은 세습이라는 말에 대치되는 말이다. 권력의 세습은 왕권 시대에 있었던 용어이다. 소위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다. 왕의 권력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는 뜻이다. 하늘이 내린 권력은 당연히 세습되게 되어 있었다. 왕이 죽으면 세자가 그 왕권을 이어 받고

내려와야 한다. 메이플라워 협정은 이렇게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협정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은 물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겠지만, 실은 이 민주적 투표 제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들의 뜻에 어그러진 의견을 개진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는 정도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앞으로 미국의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제도는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거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요, 그 제도 자체가 미국의 힘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 즉 세속주의의 극복은 진실로 미국의 앞날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 여겨진다. 만일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청교도주의가 쇠해가고, 물질과 향락이 넘실대는 세속주의 속에 매몰된다면 미국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목숨 걸고 이주를 감행했던 청교도들의 정신이 다시 재현되기 위해 금년 추수 감사절에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다. 여기에 미국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에 생각할 두 가지

이현국 칼럼



이현국 목사
미주 대한신학대학 및 대학원

예배예술사역(Worship Arts Ministry)의 신학적 배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1:14)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으로 사셨다. 인간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셨으며 그 당시의 노래를 부르셨다. 이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신 방법은 오늘날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배예술사역(Worship Arts Ministry)이란?

현시대를 담아내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모든 요소를 통해 드러내는 예배 사역을 말한다.

예배예술사역(Worship Arts Ministry)의 필요성

하나님은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고 말

씀하신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서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 찬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술이 하나님의 피

조물임을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를 통해 확실히 증거되고 있다.

20세기를 지나오면서 급변하는 문화 형태 속에 예술 또한 무수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다양한 예배가 시도되고 있

며 대중적인 예술 활동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문화적 현실은 매우 향상되었다. 그러나 문화 주체자들이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형식의 변화만을 추구하여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면이 훼손되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남겼음을 부인

할 수는 없다. 이에,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바른 이해를 살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배예술 사역의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 교회의 새로운 예배예술 사역의 필요성과 나아가 다가올 세

대의 예배예술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은 예배예술은 본질을 지키면서 그 형식과 방법은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에 따라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 변천의 이면에는 각 시대의 문화 담는 대중적인 삶과 정서가

담긴 예술이 예배가운데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와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 왔으며 특히 현대에 와서는 그 변화의 주기가 더 빨라졌고 더 많은 반동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 한국교회는 이제 막 예배예술에 대해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에 한국교회는 한국적인 예배예술 사역의 필요성과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들의 양성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각 시대의 문화를 담아냈던 예배는 옛 전통을 지키는데 힘을 쓰느라 오늘의 문화를 너무 오래 동안 잃어버려 왔다. 하늘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 철저히 그것을 공유하신 예수의 삶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세상의 문화를 감싸 안고 그 한복판에 예수의 정신을 심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은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담아내는 예술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예술사역(Worship Arts Ministry)은 현대교회 특히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다.

한국교회 예배예술사역의 필요성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OPEN 7DAYS A WEEK**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손병렬 칼럼



손병렬 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크리스마스 다음 가는 축제일인 추수감사절입니다. 비록 제2의 명절이지만, 크리스마스와는 달리 가족들을 위한 쇼핑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날부터 미식 축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른, 특히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1620년 Mayflower호에 몸을 싣고 무작

정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 47명은 그 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신대륙의 혹독한 기후와 풍토병, 그리고 토양에 맞는 농사법을 익히지

않은 신대륙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이민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 신대륙 내에서도 가장 성공한 소수 민족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

아있는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행했던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 이웃과 가진 것을 공유하는 나눔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나눔이 동반되지 않는 감사는 우리의 감춰진 또 다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수감사절은 Thanks와 Giving이 만나는 날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감사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사랑 넘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Thanks 와 giving이 만나는 날

못해, 질병과 기근으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도움을 손을 내민 이웃들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콩, 보리 등 신대륙에 적합한 농사를 지은 결과, 이듬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감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이웃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자신들이 거둔 수확을 나누고 식사를 하며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추수감사절은 영

호를 타고, 제물포를 떠나, 1903년 1월 23일 아침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록 청교도들과는 달리 사탕수수밭에 고용되어 중노동의 첫날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정착을 위한 고통스러운 나날들, 102명이라는 첫 이민자의 숫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종교 박해로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청교도들처럼, 우리의 첫 이민세대도 가난과 기근으로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기이하게도 닮아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근면함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엄격한 삶의 자세

를 타고, 제물포를 떠나, 1903년 1월 23일 아침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록 청교도들과는 달리 사탕수수밭에 고용되어 중노동의 첫날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정착을 위한 고통스러운 나날들, 102명이라는 첫 이민자의 숫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종교 박해로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기이하게도 닮아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근면함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엄격한 삶의 자세

박준서 칼럼



박준서 부회장
월드비전 아시아 후원개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신가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

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 때 귀를 다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항상 조용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제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과 고난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행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절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

행복은 감사로부터

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져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발명왕 에디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옛날 기차 안에서 연구를 하던 중,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화학약품이 든 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에 불이 났고, 차장이 화가 나서 저를 밖

도 안에서 성경을 선물로 주시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넷째,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여 주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행복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고 멋진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운동을 하면 몸 근육이 키워지듯 생각의 근육도 훈련하면 키워집니다. 여러분, ‘감사근’을 키워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다’는 생각근육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영혼 속에 자리 잡아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을 테니까요. 분명 파스한 행복이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

박용덕 칼럼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나리교회

정신학적인 용어 중에 ‘감사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불행하며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1년 중 가장 큰 잔치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도 이 날 만큼은 부모들이 계시는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의 근

본 목적은 한 해 동안 보살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가족과 이웃들 간에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데 있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혹한의 겨울

지방에서는 칠면조와 함께 이날 식탁에 5개의 옥수수를 올려놓는데, 이는 청교도들이 식량난으로 고생할 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으로 배당되었던 옥수수 5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때 각 가정의 부모들은 첫 추수 감사절이 지켜지기까지 고생했던 선조들

감사해야만 되는 절대성에 의한 감사여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

감사지수를 높이라

을 지내고 1621년 봄이 되어 씨를 뿌린 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신대륙에서의 첫 수확을 거둔 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사람들은 처음 추수 감사절에 차려졌던 식탁과 관련된 음식을 가족은 물론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추수 감사절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풍습으로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습은 첫 추수 감사절 때 새 사냥을 했던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와 먹기 시작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일부

의 수고를 설명해 주며 자녀들과 함께 고 옥수수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오늘날 풍요로운 미국을 있게 한 근본 사상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모든 것이 풍성한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 마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듯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누릴 것이 많다보니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불평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참된 감사는 어떤 조건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감사하는 감사, 다시 말해 당연히

리에게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수평적 감사가 아니라 수직적 감사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전 세계로 보내셔서 큰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로 충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 충만한 자는 믿음 충만한 자요, 믿음이 충만한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생활에 성공하여 믿음에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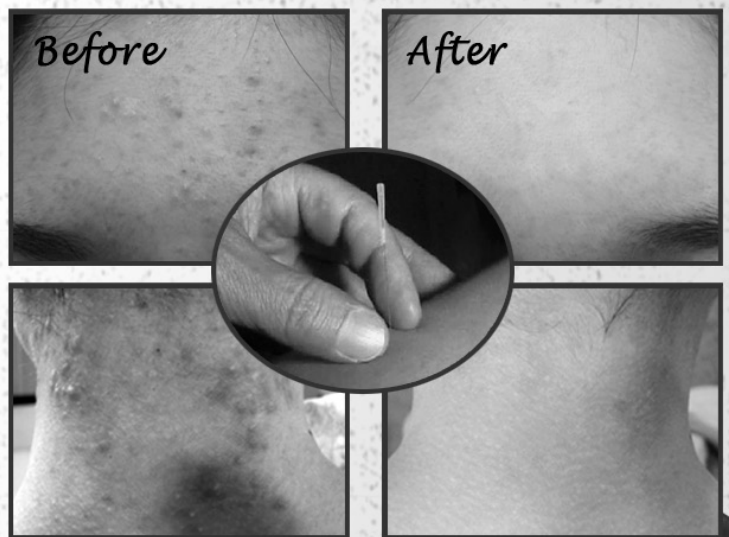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판매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썩어 가는 임플란트	* 턱터 박상술 보철 전문의	* 턱터 최인호 임플란트 전문의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림 없이 씹는 임플란트	연세 치과대학 졸업	보스턴 임플란트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과장 수료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른기법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 보철환원: PPO, HMOA
치주치료 • TMJ (악관절장애, 스피린트) •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력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을학기 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캐테리시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김자미역국 \$1.00 (1인당)
아재비빔밥 \$1.20 (1인당)
고기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식재료 도.소매

- 주말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용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 땀나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상점 및 그리저용 Bott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스트,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한방병원
98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5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새벽5시

133일 특별새벽기도
2010년 11월 22일~2011년 4월 24일

2010 제4차 연말특별새벽부흥회

중심하며 기도하라!

(이사야 58:6-12)

2010년 11월 29일~12월 11일 새벽5시 (토/새벽6시)



11/28(주일)
박승규 담임목사



11/29(월)~12/1(수)
박형은 목사
(빛내리교회)



12/2(목)
오석환 선교사
(V2R 대표)



12/3(금)~12/5(주일)
김요셉 목사
(원천교회)



12/6(월)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12/7(화)
손인식 목사
(벨엘한인교회)



12/8(수)~12/9(목)
박수웅 장로
(가정사역전문가)



12/10(금)~12/12(주일)
신호범 의원
(워싱턴 주 상원위원)

- ∞ 11월 14일 의료축제
- ∞ 12월 17~19일 중·고등부 수련회
- ∞ 12월 19일 제3회 하나됨의 큰잔치
- ∞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성탄절 감사예배
- ∞ 12월 31일 (오후 11시) 송구영신예배

주일 예배시간

1부 7:30 2부 9:45 장소: 은혜채플

"Holy Wave 비전예배"

3부 12:30 4부 2:30 장소: 사랑채플

수요여성모임 (마더와이즈 사역)
매주 수요일 오전 9:30 / 은혜채플



- From Diamond Bar
60 East > 71 South
> Exit & Left Turn on Grand(Edison) Ave.
> Left Turn on Central Ave.
> Right Turn on Schaefer Ave.
- From Corona & Riverside
91 West > 71 North > Right Turn on Central Ave.
> Right Turn on Schaefer Ave.
- From Rancho Cucamonga & Fontana
60 West > Exit & Left Turn on Central Ave.
> Left Turn on Schaefer Ave.
- From Anaheim & Brea
91 East > 57 North > 60 East > 71 South > Exit & Left Turn on Grand(Edison) Ave.
> Left Turn on Central Ave. > Right Turn on Schaefer Ave.

교	유치부	1부 오전 9:45
		2부 오후 12:30
육	유년부	1부 오전 9:45
		2부 오후 12:30
부	초등부	1부 오전 9:45
		2부 오후 12:30
	YOUTH	오후 12:30

2010 사랑의 콘서트

및 복음화성회

2010 LOVE CONCERT



허준호



남가주한인목사회



강사 김정훈 목사 (한국축복교회 담임목사)



별

• 출연진 : 허준호, 김사랑외 연예인 및 축복교회 연합공연단 80여명

• 특별강연 : 강사 김정훈 목사 (한국축복교회 담임목사)

• 공연일자 : 2010년 12월 4일 (토요일)

• 장소 :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213-749-4500

• 1부공연시간: 오후 1시 • 2부공연시간: 오후 7시

• 기획: 전재학 목사



김사랑



김보성



김호원



윈티드



업타운



우수



2010 사랑의 콘서트 공동후원회

주최: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

미디어후원: 한국일보, 라디오서울, KTN-TV,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후원: 남가주 교협, O.C 교협, L.A교역자협의회 특별협찬: 삼호관광

*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11월 28일(주일) 오후 미주성산교회에서 오후 4시에 거행됩니다. *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olidays

...HYUNDAI **HAS IT**

2010년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단,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정

추수 감사절 대박 세일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11월 스페셜 세일

2010년 NEW 엑센트



2010년 엑센트 GS (VIN # 172818)
정상가 \$17,995 **세일가 \$13,999**
(INCLUDE REBATE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96)

2010년 NEW 엘란트라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93924) 정상가 \$17,795 **세일가 \$12,9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6)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5411) 정상가 \$18,61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11)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3362) 정상가 \$18,69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1984) 정상가 \$19,360 **세일가 \$14,2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6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0605) 정상가 \$19,410 **세일가 \$14,3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11)

2010년 NEW 제네시스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1505) 정상가 \$25,625 **세일가 \$21,5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26)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2493) 정상가 \$23,235 **세일가 \$19,6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36)

2011년 NEW 쏘나타 GLS



2011년 최신형 쏘나타 GLS (VIN # 157254) 정상가 \$21,254 **세일가 \$17,699**
(INCLUDE LOYALTY 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81)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매니저가 권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let you know.